



지방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산품 개발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되면서 전국이 17개의 자치 행정구역으로 되었고 그 밑에 시·군·구의 자치단체가 있어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창의적 행정을 펴고 있다.

필자는 민선 7기 단체장의 3년 실적을 발표하는 데에 참석하여 단체장들의 역량과 공적을 살펴보고,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공보 담당과 경제 담당을 만나 상담하며 지역 실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단체장들이 새마을 정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득을 높이는 창의적 노력과 공적을 세우고 있는데 찬사를 보았다.

특히 돋보이고 있는 것은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22개 시·군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야산이 많아 개간하여 밭이 많은데 밭작물로 고구마 재배를 많이 하며 연중 배추를 재배해 배추를 소금으로 간해 절간하여 국내 수용가에 배송하고 있으며 김치를 만드는 안내와 실전을 하고 있다. 특히 남쪽 지방으로 밭이 많은 화원면 일대에서는 배추재배를 많이 하여 김치 공장을 만들

어 김치 생산을 하고 있으며, 김치가 세계적인 으뜸 식품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대규모 김치공장 설립을 해남에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일촌일품(一村一品)의 상품으로 해남의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가 세계 식품 시장에 수출되어 먹게 된다면 자랑스러운 일이며 지역 상품 개발에 서광이 비친다.

해남군의 산이면 일대 해변에는 수만 평의 모래밭이 있으며 땅속을 파보면 양질의 모래인 규사가 나오고 있어 이곳에 유리 공장을 설립하면 유리 원료가 풍부해 태양광발전의 모듈 생산 원료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으면 해남에 전국 최대규모의 유리 공장이 들어설 전망이 보인다.

야산이 많은 나주시와 영암군은 야산을 개발해 과수원으로 조성해 우량의 배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으며 영암 삼호면 일대에서는 무화과를 재배해서 9~10월 특산품으로 출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한반도에 있어 바다에 접한 해안선이 많으며

특히 서해안은 해안선의 드나들이 많고 바다가 얇은 대륙붕 지역의 바다가 넓으며, 남해안은 다도해를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 서식하는 해조류와 어족이 풍부하며,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하고 고기때가 모여든다. 이러한 바다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생산소득원으로 이용해 농어촌 지방 소득을 높이고 있다.

바다를 이용하는 데서 개발하고 활용하며 잡는 어업에서 양식하는 어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바다를 어떻게 잘 개발하고 이용하는가에 따라 지역 소득을 올리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바다의 여건을 가장 잘 이용하여 선진화 자립의 길을 가고 있는 지자체가 신안군과 완도군이다.

잘살기 운동인 새마을 운동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이양되었지만, 전남도와 각 시·군은 국가 계약대에 새마을기를 계약하고 '남보다 더 일하여 더 잘사는 선진국을 만들자'는 새마을 운동의 꿈을 품고 노력하여 창의적인 노력은 지역 특산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양식하여 채취하는 미역 김 다시마의 해조류 특산품과 전복을 비롯한

어패류도 양질의 지역 특산품으로 새롭게 개발하여 국제화 시대에 수출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세계 각국의 농작물을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작물 재배로 한라봉을 비롯한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여 우량 농산물로 출하하고 있다.

민주화의 시대에 지방자치는 민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것이 지방 소득을 올리는 지역 특산품 개발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을 높여 빛이 없는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 자치의 역기능은 민선 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잘못하여 빚을 지고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단체장들이었는데 전라남도 시·군은 빚을 갚는 데 노력하여 빚이 없는 시·군이 대부분이었다.

정보화 시대에 소득을 올리는 좋은 정보를 남보다 먼저 접수하여 지역 특색에 알맞게 실천하는 시·군이 지방자치 시대에 앞서가게 된다. 고기때가 물러온다는 정보를 알았으면, 빛을 내서라도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한 어선과 그물 등의 도구를 준비해야 하며 고기를 많이 잡아서 빛을 갚으면 된다.

국제화 시대, 정보화시대에 민선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좋은 정보를 남보다 먼저 받아들여 창의력을 발휘해 지역특산품 개발에 노력했으면 한다.

칼럼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기고

발전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 필요

선승규 장흥군 축산사업소 자원순환팀장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아파트층간소음은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처럼 최근 들어 감각공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감각공해는 사람이 감각 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생활활동과 밀접한 공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동시에 유발하며, 소송이 뒤 따르기도 한다. 소음공해, 진동공해, 악취공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그중에서 특히, 축산악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악취는 지형, 기후, 농장형태 등에 따라 발생편차가 크고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공해로 정량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우리군은 오랜기간 축산업이 발전하여 한우가 주민숫자보다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 취약지역 내에 축사들이 많이 있다. 이는 축사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축산악취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축사관리 소홀과 미숙한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미흡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소관리를 통한 농장 환경개선,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가축사양관리강화 악취발생저감 등을 실천하도록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 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의식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부터 깨끗한 농장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농장 추진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거주할 수 있길 소망한다.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이제는 축산업도 깨끗한 축산과 더불어 친환경 인증, HACCP인증, 나아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으로 전환하여 품질 좋은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길이 축산업으로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장흥군의 깨끗한 농장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50호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었다. 축종별로는 한우 34호, 오리 13호, 닭 3호, 연도별로는 '18년도 9호, '19년도 5호, '20년도 12호 '21년도 상반기까지 24호가 지정되었고 현재 138호가 농림 축산식품부 심사중에 있다.

기고

아파트 화재 시 생명의 통로를 지키자

한선근 보성소방효교119안전센터 소방위



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입주민, 관리자 등)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불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

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하여 자동 개방,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 옥상 출입문 열쇠 각 세대 보급 등으로 유사시 개폐 가능토록 권장하여 설치 추진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이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가므로 대피를 위해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하여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편의상 말발굽 설치, 도어클로저 고장 방치,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장하는 등 화재 시 열린 채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통로에 연기가 들어가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은 과태료 등 처벌이 따르지만, 그에 앞서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 이웃이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자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기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기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